

“ 전국 2만여 농민함성 여의도진동 ”

— 미대사관까지 10km 평화 행진 —



개국이래 최대의 농민함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광장과 서울시내를 진동했다.

본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민협회 등 16개 농민단체 모임인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 류달영)」는 지난 11월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광

장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및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다.

2만여명의 농민이 참석한 대회에서 농민들은 「단군이래 최대의 농업위기로 ‘민족의 어머니’인 농민들이 가장 천대받고 빼앗기는 계층으로 전락했다」며 반농



민적 농업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농민들은 「소름끼치는 소파동 피명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쇠고기, 유제품, 육가공품, 양담배 등을 수입함으로써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통분하고 농축산물 수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양돈농민 3천여명은 「재벌기업의 양돈참여」를 규탄하고 ▷재벌기업의 양돈참여를 금지하는 축산법 개정 ▷축산물가격안정법 제정 ▷배합사료 등 생산원자재의 관세·부가세 면제 등을 촉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우리의 주장을 통해 ▷내년도의 쇠고기 3만 9천톤 수입계획 즉각 철회 ▷재분기업 축산 참여 금지하는 축산법 개정 ▷농축산물 가격안정법 제정 ▷농민만이 토지를 소유하는 농지기본법 제정 ▷농수축협의 민주화와 농지개발조합 해체 ▷비료·농약·사료·농기계의 부가세 철폐와 가격 인하 ▷박종문 전농수산부장관 의법처단 ▷부정축재 환수하여 농가부채 정리할 것 등을 강력 요구했다.

특히, 이날 농민들은 「당면농업농민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통해, 「개방농정 중단하고 독과점 규제하라», 「농민도 사람이다 제값 한번 받아보자», 「토지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사수」가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른 농민들은 대회를 마친후 「농축산물 수입 결사반대», 「재

벌축산 금지», 「농민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등의 각종 구호가 적힌 각종 피켓과 프랑카드를 들고 마포대교-공덕동 로터리-아현동-서대문 로터리를 거쳐 미대사관까지 평화적인 행진을 했으나, 신문로2가 고려병원앞에서 미대사관 진입을 저지하며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과 한때 투석전을 벌인후 오후 6시 30분경 자진 해산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쪽으로 행진하던 농민들중 5백여 명이 서대문 로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건물 17층 식당을 점거한채 주한미대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농협 및 축협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투석전에서 서경원 의원(평민·함평)이 돌에 맞아 앞이마를 20바늘 꿰매는 중상을 입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평화적인 시가 행진중 농민들은 인도의 시민들에게 각종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농성을 하던 진도·해남군 농민들은 시위대가 지날때 4층 창문으로 고추를 쏟아부리기도 했다.

이날 전국농민대회는 개국 이래 최초의 농민단체 연합집회인 탓으로 뉴욕타임즈, NHK 방송 등 외신도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농민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전국계우회연합회, 한국포도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유기농업환경연구회, 전국생약재생산농민동우회, 전국육계안정협의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전국농민협회, 카톨릭여성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4H연구회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전국계우회연합회, 한국포도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유기농업환경연구회, 전국생약재생산농민동우회, 전국육계안정협의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전국농민협회, 카톨릭여성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축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4H연구회연합회

취재 : 김동성